

집사회

최정열 집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집사회는 올해 2월 1일에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 **신임회장단:**

**회장- 최 정열 집사, 총무- 강 승민 집사,
서기- 김 우진 집사, 회계- 정 재원 집사**

그리고 집사회 내에 13개의 부서가 있고 각 부서마다 부장 및 차장께서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2월의 행사로는, 2월에 임명되신 신임 집사님들께 E-Card를 보내 드렸고, 2월 16일 (토)에는 임시 총회를 가져,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사회칙, 일년 행사 계획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2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는 예년에는 없었던 “찬양과 기도의 밤” 으로 모여 22명의 집사님들께서 1시간 반 동안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과 기도의 밤에 집사님들 모두 초청 합니다.

3월에 계획된 행사로는 건축 기금 마련 물품 수집 및 판매, 그리고 KCB Idol 에 대한 준비가 예

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85명이나 되는 집사회 회원들의 E-Mail 주소 확인 및 비상 연락망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부탁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회비를 내지 않으신 분은 최정열 집사나 회계 집사 되시는 정 재원 집사께(부청) 그리고 1부에 예배 보시는 분들께서는 배 성희 집사께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는 제직 수련회, KCB Idol, 건강 세미나,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가질 예정이고, 5월에는 어머니 날 행사 점심 준비, 건축 기금 모금 골프 대회, 전교인 체육 대회 등이 차례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으로 많은 행사를 계획할 수는 없지만 질적으로 알찬 행사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집사님들께서 각 행사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매일 승리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드리면서...

권사회

정선주 권사

2011년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고, 강추위속에서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무탈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다 보니 권사님 대부분 나이도 점점 올라가는군요. 어떨 때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권사님들 마음은 다가올 봄날같이 따뜻합니다.

올해 권사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수고를 하여 마련한 ECC 건축에 저희 권사회에서 도움이 되고자 이번 3월 20일 주일 Fundraising을 (싱싱하고 맛있는 California Orange 를 가지고) 하고자 하오니 교인들께서 모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권사회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 **신임회장단: 회장: 정선주 부회장:정능화
회계/총무:이계순**

다같이 마음을 합하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나 병으로 고통하시는 교우들을 돕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 돕는 권사회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남선교회

방경남 집사

여러분들의 기도와 배려 속에서 남 선교회가 발족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남 선교회는 함께 모여 친목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기본 직분인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12월에는 첫째 주에 신입회장님 댁에서 신규 임원교체 및 회의를 하였으며 둘째 주에는 김 주석 총영사님 내외 분의 초대로 영사관에서 회원들의 친목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년 남선 교회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주신 총영사님 내외 분께 감사



드립니다.

2010년 말일에는 송구영신 행사로 떡국을 먹으며 윗놀이, 재기차기 및 줄넘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윗놀이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총 18팀의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여 ‘내조의 여왕’ 팀(김영미, 김향인, 박강희, 한정인)이 1등을 하였고, 재기차기는 차민호, 윤미자 선수가 그리고 줄넘기는 김정아, 정하진 선수께서 영예의 1등을 하였습니다. 또 예배 후 경품권 추첨 행사를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원년(2009년) 회장단의 노고와 자문위원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회원들간의 교제를 통하여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나누는 공동체로써 성장하여 선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남선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부부 청년회

정광근 집사

우리 부청은 지난 2월 6일 교회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를 주최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각두기를 모두 팔 수 있었고, 수익금 전액을 교회 건축 재정 도움을 위해 교회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1일에는 청년 1,2부와 함께 신년 맞이 연합 찬양, 기도의 밤을 가졌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청 식구중 한 집사님은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은것 같은 충만함과 큰 만족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하는 오락시간을 준비한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 청년 1, 2부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합모임에서는 이요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희진 사모님께서 몇 분의 volunteer님들과 함께 부청의 아이들을 너무 잘 돌봐 주셔서 엄마, 아빠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있는 제직 임직식때 저희 부청

식구 가운데 무려8분이 서리집사에 임직 되셨습니다. 앞으로 부청과 보스톤 한인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실 강윤석, 이정은, 이재익, 김명은, 사공현일, 박정은, 이지훈, 정은아 집사님을 격려해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는 4월 8일, 9일 양일간 샤론 수양관에서 부청 수양회를 가질 계획인데 새로 부청 담당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김건철 목사님을 모시고 “성전에 흐르는 생명이” 라는 주제로 예배를 사모하는 부부 청년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청년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신앙간증문 (2010년 12월 세례)



강민영/김진섭(강준서)

먼저 제게 준서의 엄마로서 신앙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이 자리에 있기

까지 한결 같은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둘째를 놓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속으로는 아직 형편이 안되어서 어쩌나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가슴속에 그 어떤 설렘과 행복함으로 따뜻하게 차 올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준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저희를 채워 주셨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소망을 주시고 준서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그리고 도움 속에서 10달 동안 다시 한번 생명을 뱃속에 품고 그 벅찬 순간들을 너무 감사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무

서운 입덧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맛있는 반찬들로 도와주신 구역모임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서가 태어나고 드린 기도의 제목은 대를 잇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준서를 통해서 역사하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준서를 말씀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준서의 전 생애를 통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준서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남편이 주님을 그리고 우리 제언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같이 준서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준서가 스스로 마음속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인세례를 받기 전까지 부모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지훈/정은아

(이은호, Eunho Lee)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어릴 때 습관적으로 듣고 따라 부르던 찬송가 가사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서는 “신앙고백”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딸과 큰 터울없이 태어나준 은호를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음 받은 형상대로 자라준 것이 지금 3살이 된 은호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겠지요.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이제는 자기 표현도 그럴 듯하게 하는 것.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 하루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는데 3년을 통틀어 회상해보니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었구나 싶습니다.

지금은 딱 2살에서 3살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우리 은호에게서 보입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했던 이지훈, 정은아의 아들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하루에 절반이상이지만, 그 또한 화살같이 빠른 세월의 일부가 되겠지요. 생각해 보면 유별나지 않고 그냥 보통 남자아이로 자라주는 것 뿐인데 저는 남들이 칭찬해주는 “착한 아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간증문을 통해 은호에 대한 제 간사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늘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은호가 우리 부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말에 더 진심을 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은호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은호를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은호’ 대로 자라 주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외장 이성숙 집사

온통 주위가 하얗게 흰눈에 뒤덮여 과연 봄이 올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이치를 역행할 수 없다는 듯 모든 걸 녹이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요.

12월 정기총회에서 신입 임원단을 선출한 것이 옛 그제 일 같은데 어느덧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에스더에서 가졌던 행사들과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12/12 정기총회 새 임원진 선출**
회장:이 성숙, 부회장:강 혜정, 회계:손 주연, 서기:김 윤정, 봉사부:변 옥화, 친선부:전 아사, 선교부:윤 희경, 문화부:김 희정
- **1/2 신년 주일 예배** -특별 다과준비 (떡)
- **1/30 여선교회 임원회**-임원진 소개와 각 부서 활동소개,1년 활동점검, 여선교회 헌신예배 논의와 기타 건의사항들을 나누었습니다.
- **2/6 제직 임직식**-특별 다과 준비, 문화부에서는 코사지 준비
- **3/6 문화부**에서 목사님 생신 케익 준비, 기금

- 모금 바자회(순대)
- **3/9 재의 수요일** 보리차 준비
- **3/13 청년 1,2부** 식사접대 계획
- **3/20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 예배 계획**



3월까지의 행사내용이었고, 4월과 5월에는 부활주일예배와 성 금요일예배,어머니 주일 예배가 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가 교회의 행사이기에 에스더 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관심을 갖고 기도도 또는 동참하셔서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속에 순대 바자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와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Sunflower Sunday School

(해바라기 유년 초등 주일학교 소식) 이은주 집사

지난 2월 6일에는 그동안 Sunflower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랑스런 우리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봄학기를 맞아 6학년은 중고등부로 진급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12일부터는 유년부에 속해서 12시에 예배를 보던 1학년 학생들이 11시에 있는 초등부 예배로 진급했습니다. 새로운 그룹에 속해서 예배를 드릴 어린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6일부터는 초등부 학생들이 새로운 “Roots”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며 합창, worship dance, 성경공부의 3가지 특별 활동을 하게됩니다. 첫번째 달에는 새로운 활동을 처음 배우고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두번째 달에는 연습과 외우는데 중점을 두며, 마지막 3번째 달에는 그동안 배운 것을 전체 주일학교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새 프로그램에 대해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의 기대가 큼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대화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그동안 저희와 함께 주일학교에서 섬기던 문지용 선생님이 귀국하심에 따라, 그 대신 다른 세 분의 새로운 선생님들이 봉사해주시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분기별 교사모임을 김효경 집사님 맥에서 초대해 주셔서 풍성한 점심과 함께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주일학교가 잘 되고 특히 좋은 새 전도사님을 하루 속히 모실수 있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명품

김종연 교수 (형년 2부)

저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Boston에서 5년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학 생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유학생활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의 행동 하나 하나가 신기하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되듯이, 저의 유학 생활도 그러했습니다.

학교에서 3년 동안이나 개인 tutor를 붙여 줄 정도로 유학 첫 해에는 영어로 의사소통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로인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또한 수학과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것들이 커다란 산처럼 다가왔습니다. 또한 낯설은 곳에서 부딪치는 익숙하지 않은 사건들과 혼자만의 시간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각각의 사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명품을 좋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좋아한다. 솔직히 너무 좋아한다. 디자인, 색상, 재질 등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유하면 나는 특별한 느낌이 든다. 내 삶도 돌아보면 명품 인생이 되기위해 치열하게 발버둥을 쳤던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나의 동생을 포기하셨을 정도로 너무 가난했다. 평화의 댐이 무너져 홍수가 나도 우리집은 전혀 물난리가 나지 않는 서울에서 알만한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다. 경사가 급격하여 차가 오르기 어려운, 산과 하늘이 닿은 곳에서 살았다.

초등학교 때에는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우람한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다. 강압과 폭력으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나는 학업에 흥미가 없었다. 배움에 있어서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즐거웠어야 할 시절을 나는 이렇게 안타깝게 보냈다. 당연히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갈수 없어서 일 년을 다시 공부해야했다.

가끔씩 그리고 문득, Boston에서 수학을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난다. 믿겨지지 않는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시간을 갖게 하셨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는 엄청난 아로 인해 비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학교 생활과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의 마음과, 집안이 가난하여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는 경험했기에 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학력을 거것으로 기재해 봤기에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가 그러했기에 열등감이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제 나는 학생의 신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가끔씩 나는 지난 삶,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학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부모의 보호막이 없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의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놀라며 지금도 나의 내면의 모습을 알아가며 놀라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 싫어하고, 번거롭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기 싫어하며, 도움의 손길을 모른체 하고, 가끔씩 자만한 내 모습을 발견하며, 명품들의 이름과 매장을 줄줄이 알며 소비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보면 유학생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핑계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대부분의 Boston의 유학생들처럼 높아지기 위해 칼날 만을 갈아왔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지금까지, 특히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로 인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평생 감사를 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더욱 더 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것을 알기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학생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내 안의 여러가지 적약된 모습을 발견하며,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알게 또는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유학 기간이 하나님께 무릎꿇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바람을 응답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관대 나에게 Boston에서 유학 생활을 허락하셨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4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자신은 없지만 찬양대에 서고,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가슴을 뛰게합

니다. 이 일이 저에게 감동을 주며 즐겁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유초등부 교사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없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장난치며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이 싫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은 이 말을 꼭 듣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명품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명품이기를 원합니다.

졸업후의 삶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직장을 주실지,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지, 무엇보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시간 낭비하고, 돌아가게 될 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150:6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salms 150:6

8페이지에서 계속

오늘의 이 감사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60년전의 북한 어느 동해안의 그 바닷가에서 지금은 100세를 훨씬 넘으셨지만 모래가 되어서라도 떠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셔야 한다고 우기면서 기어이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보고 싶은 나의 엄마, 윗 동서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막내삼촌이 소천을 받으신 뒤에는 혼자서라도 이 조카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는 막내 숙모님,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백수가 되시는 엄마같은 나의 장모님, 결혼 이후 지금까지 나를 지지해 주고 일깨워 주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소중한 아들들과 며느리, 나의 가장 귀여운 손주들 태진이와 태라, 한국과 북한과 캐나다와 아프리카와 미국에 살고 있는 나의 모든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들, 언제나 서로 아끼고 화목

하게 지내는 우리 남서 2구역 식구들, 당회장 목사님, 그동안 같이 섬기며 봉사했던 모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배예술회에서 같이 섬겼던 위원님, 홍보위원회에서 함께 애쓰며 일했던 모든 위원님, 그 당시 2부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위원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과도 이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백의중군하는 자세로, 오사이 말로는 자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찌다가 교회가 시키는 일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대로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들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6일

마리아 여선교회

외강 고경아 집사

2010년 12월에는 마리아 여선교회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김춘미 전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한 해동안의 행사보고와 신 회장의 선출이 있었고, 이때 고경아 집사님이 2011년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새 회장단 및 임원진의 인준과, 2011년도의 행사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및 회비책정 등을 의논, 결정함으로 2011년도 마리아 여선교회가 출범 되었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가 태어난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지않은 세월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봉사로 대 내외 교회 구석구석을 섬겨온 마리아 여선교회는 교회 각종 행사주관과 1부다과로 매주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주한인회 여성연합회(KCWUUSA)에서 김경애권사님과 김중희집사님께서 봉사하고 계시고, 김한나 집사님은 동북대회 여성 연합회(KPWSNE, PCUSA) 회장으로, 홍도화 집사님은 회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마리아 여선교회는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교회내의 활동으로 여선교회 헌신예배, Fundraising Event, 웨마의밤 저녁준비, 부활절 특별다과, 청년부 식사 등등을 계획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4월에 있을 동북대회 여성연합회의 연합수련회, 5월에 Chicago에 있을 전국여성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우선, 3월 첫째주에 드린 세계기도일 예배는 세계

여성들의 비전을 품으며 칠레 여성들이 작성한 “우리 가진 것을 나눌때”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이요한 목사님의 “나눔”이라는 설교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3월 첫째 금요일에 국가와 교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속에서 같은 주제로 예배드리시는 세계 기도일 예배는, 1887년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기도의 모임으로 오늘날 180여개국이 함께하는 세계 기도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마리아 여선교회 임원진>

고문 : 이성혜 사모, 김영미 집사, 김춘미 집사
 회장 : 고경아 집사, 부회장 : 윤미자 집사,
 총무 : 김영순집사, 회계: 홍도화 집사,
 서기 : 김향인 집사 구제부 : 김효경 집사,
 선교부 : 인수현 집사 봉사부 : 저며수 집사



미 국 장로교

한인교회여선교회

동북대회연합회(KPW/SNE)
 동부한미도회연합회(EKPW)



연합수련회 및 기교회 여성대표수련회

- **주제:** 한인교회여성, 이대로 좋은가?
- **강사:** 김진숙 목사
- **일시:** 2011년 4월 29일 (금) 오후 5시 ~30일(토), 오후 3시
- **장소:** STONY POINT CENTER
 17 Crickettown Road. Stony Point, NY 10980-3299
 (845) 786-5674
 www.stonypointcenter.org
- **등록비:** overnight: \$60.00
- **지참물:** (타올과 침구용품을 제외한) 개인세면도구 및 생필품, 성경책, 필기도구, 기타
- **문의처:** 김한나 (781-741-2722)



Ransom Youth Group

양동준 집사



올해 저희 유스 그룹에 많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부족 등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올해 유스그룹은 두 개의 클래스(한국어 반과 7,8학년 분반)를 추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2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지도력이 강한 학생 리더 그룹이 유스그룹을 잘 이끌고 있으며 훌륭한 찬양팀이 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많은 사랑을 저희 유스그룹에 보여주시며 매우 달란트가 많은 두 분의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스그룹이 주님의 기쁜 소식(Good News)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불길을 계속해서 지필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 유스그룹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배웠습니다. 4월말까지 창세기 공부가 계속 될 것입니다.

• 2월 - 아이스 스케이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6학년들에게는 유스그룹에 2월 둘째주에 합류한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이벤트였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하는 등 호응이 좋았습니다.

• 3월 12일 - 6학년을 환영하기 위해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오픈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6학년 학생들이 참석하여 선배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 4월 15일 - 봄방학의 시작입니다. Groton에 있는 Grotonwood Conference Center에서 lock-in을 할 예정입니다. Gordon Conwell Seminary School에서 초청강사를 모시고 초청 찬양팀도 모실 예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5월 - ECC건축을 위하여 fund raising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5월초에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스 그룹에서는 많은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의 여정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저희 유스그룹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이브예배

2010년 성탄절을 맞아 지난 12월 24일 성탄 이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촛불 예배로 그려진 성탄 이브 예배는 1부 찬양대의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이란 주제로 나레이션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탄 찬양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성탄 이브예배에는 최연소 김민신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희망인 어린이들(이하운, 안수민)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여 감동을 주었고, 상록기도회의 김지수 사모님의 멋진 독창까지 이어지는 3세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성탄 축하의 밤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2010년을 보내고, 새해인 2011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예배를 12월 31일 드렸습니다. 송년 메시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신년의 종소리에 이어 권사회와 상록기도회의 찬양이 이어진 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란 신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특송으로 청년들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란 찬양 후 다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직 임직 및 은퇴 예배

2월 6일 제직 임직 및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1년도 새로 임직받거나 재임직 받으시는 제직들이 임직식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에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오랫동안 장로로 임직하셨던 김형범 장로님의 은퇴식도 가졌습니다. 올해 임직 받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임직 장로: 안태준, 이선영
- 재임직 안수 집사: 고경아, 김중희, 김준미, 김환옥, 배성희, 이유택,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장영수, 최창열, 최현구
- 신임 안수 집사: 강운석, 구용한, 권오훈, 김명은, 김시찬, 김양희, 김정선, 류덕현, 박양신, 박정은, 사공연일, 이정은, 이재익, 이지훈, 장영연, 장영주, 정민석, 정은아, 최준영, 홍신숙



신년 예배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11년도 1월 2일,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찬양대에서는 굽게 차려 입은 한복 차림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으며, 신년 주일 메시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201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해졌습니다.

교인동정

출산:

- **이혜승/김승호** 집사택에서 1월24일에 득남 (Jimmy, 승주)
- **김상기/한혜성** 집사택에서 12월 중순에 득녀 (Janie, 주아)
- **백승한/손주연** 집사택에서 3월 초에 득남 (Luke, 인수)
- **허보석/조명희** 교우택에서 1월 12일에 득남 (Nathan, 윤우)
- 출생 가정은 교회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 **고 강길원** 장로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1월 22일 추모예배 (Memorial Service)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 최선희 교우님 부군되시는 **故 Joseph Ranieri(Tony)**께서 1월 말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After Glow

(In cherished memory of Joseph Tony Ranieri)

*I' d like the memory of me
To be a happy one.*

*I' d like to leave an afterglow of
Smiles when life is done.*

*I' d like to leave an echo
Whispering softly down the ways
Of happy times and laughing times
Send bright and sunny days.*

*I' d like the tears of those who grieve,
To dry before the sun
Of happy memories that I leave
When life is done*

P.S. Thank you for the coffee!

*최선희 교우님 남편 The Late Joseph Tony Ranieri 가정에서 보내온 편지

광고 및 행사

• 올해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3월 10일(목)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6시(토요일은 8시)에 있습니다

• **사순절 묵상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원고를 써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며 출간을 위해 수고하신 홍보위원회 및 예배위원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교회 웹사이트 www.kcboston.org의 <기도와 묵상>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 한인교회 비디오 모음**을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행사 모습을 담은 비디오들은 <http://vimeo.com/kcbosto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비디오들은 홍보위원회 유승오 집사님께서 만들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2월 19일 세례식**

-유아 세례자:

강준서 (Matthew Kang, 강민형/김진섭), 김호중 (Joshua Kim, 김용욱/김은정), 이은호 (Eunho Lee, 이지훈/정은아), 장준영 (Matthew Jun Chang, 장성연/박양신)

-성인세례자: 박성민, 천정렬

• **세례교육반:** 세례받기 원하시거나 기독교 기본교리를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례 교육반이 3월 27일 부터 시작됩니다.

- 2011년도 새해 달력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 2011년도 헌금 봉투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부** 사물놀이팀인, [하늘소리]팀이 매주 화요일(오후 7:30분) 장구 연습을 가집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김현주 집사께 연락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

이영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새교우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지난 2월 6일, 13일, 20일 3주에 걸쳐 아침 10:30-11:30 새교우 환영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주는 간단한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리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 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만남의 시간에는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2월 새교우 환영반 교우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이정규/김영미 장로님덕에 감사드립니다.

2월 새교우 환영반을 마친 가정은 김미승, 문현석/정하나, 배광현/정유미, 김영선/박혜연 4가정입니다.

• 김미승 교우 가정은 현재 남편은 외교통상부(이라크)에 근무하시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보스톤에 오셨습니다. 딸2(10/8학년), 아들1(6학년)있고 중서4구역 소속입니다.

• 문현석/정하나 교우 가정은 하버드 대학에 재직 중이시고 어린 딸2이 있고 중앙3구역 소속입니다.

• 배광현/정유미 교우 가정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이시고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배광현 교우는 직장 관계로 보스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 김영선/박혜연 교우 가정은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현재MIT에 박사후 연구과정에 있습니다. 중앙4구역 소속입니다.

4가정 모두 4번의 만남의 시간을 모두 참석하셔서 2월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잘 마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이면 보스톤 한인교회 활동교인이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짧지만 4번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회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위원회 윤미자 집사: 978-987-7388

mijayun@hotmail.com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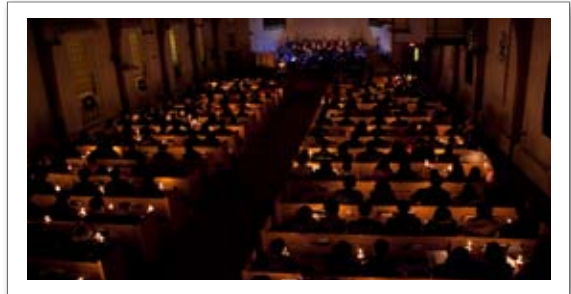
• Christmas tree



• 성탄세례식



• 성탄 이브예배 음악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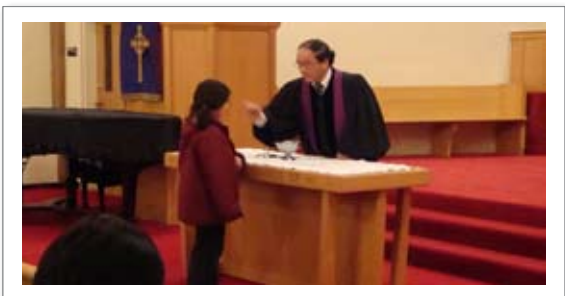
• 성탄이브 촛불예배



• 송구영신



• 제직임직예배



• Ash Wednesday



• 보스톤 한국학교 구정잔치